



SK실트론 SHE2팀은 안전과 보건,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단순히 법적 요구를 넘어서,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SHE2팀은 '내 일(My job)이 안전해야 내일(Tomorrow)이 있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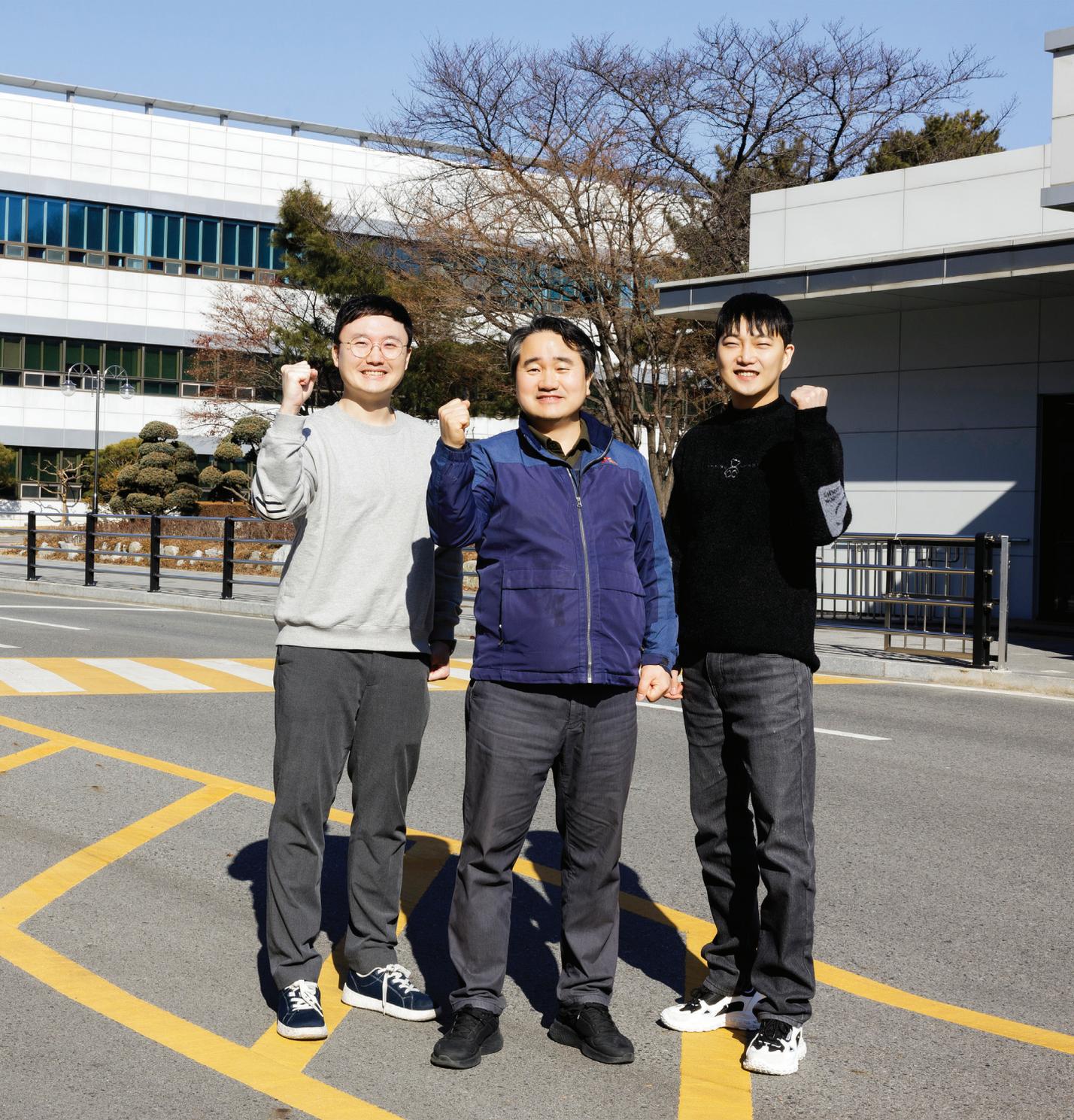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SK실트론 SHE2팀

작업환경개선컨설팅



내 일(MY JOB)이 안전해야



내일(TOMORROW)이 있다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 SHE2팀의 노력과 성과

SK실트론은 3,400여 명의 직원과 외주 협력사를 포함한 방대한 관리 대상을 두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HE팀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팀은 분업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SHE2팀은 28명의 팀원들이 안전, 보건, 환경 등 실질적인 실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SHE2팀의 유성철 팀장은 직원들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그리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이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팀의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SHE2팀의 존재 가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SHE2팀은 그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에는 '보건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 위원회에는 학계 전문 교수 3명과 SHE2팀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작업환경 내 보건 유해인자를 규명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로드맵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작업환경 검증을, 2024년에는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법적으로 규제되는 인체 유해성 물질(CMR) 700여 종과 실제로 등록된 4만여 가지 물질이 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170여 종을 정밀분석하여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대체 처리 가능한 물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 물질 외에 인체 유해물질의 도입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박재현 프로는 '보건선진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건은 안전과는 별개로, 만성적인 영향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보건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SHE2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최근 5년간 다양한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 점검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Safety 365'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2023년 대비 LT IR(직업성 사고지수)을 45% 이상 개선했다. '3', '6', '5'는 각각 3대 사고 중점 제거, 화학물질 개인 보호 장구 6가지 표준화, 매월 5일 전체 공정 점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안전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우섭 프로는 "안전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모니터링하여,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고



Safety 365

- 3** 3대 사고 중점 제거
- 6** 화학물질 개인 보호 장구 6가지 표준화
- 5** 매월 5일 전체 공정 점검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현장 실사와 함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보호구 및 시스템 표준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전과 보건관리의 선진화 지속 추진

SK실트론 SHE2팀은 안전과 보건관리에서 어느 조직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작업환경개선컨설팅을 의뢰했다.

박재현 프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만성적이든 급성적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객관성을 확보해 투명하게 운영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라고 컨설팅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련 법 해석과 각 항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내부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본 공정 개선 방법을 외부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놓쳤던 개선 항목들이 발견되었고, 많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앞으로 SHE2팀은 안전과 보건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안전, 보건, 환경, 소방 등 다양한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상호 교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안전 업무를 맡은 팀원은 보건 업무도 경험하고, 검진 업무를 담당할 팀원은 안전 관련 업무나 유해 위험 검증 작업을 통해 업무 역량을 확장할 예정이다. 둘째, SHE팀 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통 부족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팀별 업무는 철저히 수행하되 소통을 강화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 상호 윈-윈할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SK실트론 SHE2팀은 안전과 보건을 현장과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로 보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기업 전체의 안전 및 건강 문화의 뿌리가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이다. ‘내 일(My job)이 안전해야 내일(Tomorrow)이 있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28년간 안전 문화의 혁신을 이끈다

SK실트론 SHE2팀

유성철

팀장



Mini Interview

SK실트론 SHE2팀 유성철 팀장은 28년 동안 회사 내 안전 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겪었다. 초기에는 ‘시설환경안전팀’으로 안전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고, 주로 설비와 환경 관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현재는 SHE 체계를 도입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 담당 인력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유성철 팀장은 “과거에는 안전이 뒷순위였지만, 지금은 회사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투자 문화도 바뀌었으며, 이제는 안전이 생산 설비만큼 중요한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하며 SK실트론이 반도체 산업에서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